

## 2023년 7월 2일 “여호수아(10) 가나안의 진정한 왕”(수 12:6-9a)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12 장: 유업의 땅을 쟁취; 13~21 장: 유업의 분배. 오늘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 이야기와 승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요단강 동쪽 지파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요단강 동쪽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가서 자기들이 목축하며 살도록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동참할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이 땅을 내어줍니다. 신실한 지도자와 믿음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의 전쟁을 승리하여 유업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오늘 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전해줄까요?

### [2] 유업을 얻는 신약성도의 영적 전쟁

오늘 날 우리는 땅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과 가치가 담긴 유업의 상을 얻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딤후 6:2). 이 싸움의 내용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딤후 6:18).

6:19 ‘그렇게 하여(믿음의 싸움을 싸워)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영생)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로 보아 성도의 삶에는 하늘의 참된 생명을 향한 선한 싸움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추상적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나눌 때, ‘이것이 말씀하신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사는 길’임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반면, 성도가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타인을 향한 정죄를 확신한다면 복음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롬 8:1, 2:1 참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정죄없이 자기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참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으려고 애씁니다(요 10:10 참고).

### [3] 참 왕이신 하나님

12 장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찌른 인간 왕들을 열거합니다. 이제 그 땅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에덴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가꾸고 지킬 소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참 다스림을 회복하고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주변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업의 삶을 증거합니다(선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와 싸우며, 동시에 어떤 방식, 어떤 성품이 유업을 누리게 하는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보다 유업의 길을 나누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선한 일에 많이 애쓰시면서 유업의 길을 많이 터득하고 확신이 더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이스라엘이 싸운 여호와와의 전쟁과 신약 성도들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차이를 말씀해 보십시오.
2. 우리는 하늘의 가치가 담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누리기 위해 내가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비추어 보세요.